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총회)입니다. 2014년 결산보고와 2015년 신입원 명단을 사무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이메일 : nanumcc@naver.com)

다음 주일(23일) 오후 1시 30분에 각 선교회장 및 속장 간담회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당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의 활동 보고서를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늦가을, 자연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삿 4:1~7 / 시편 123
살전 5:1~11 / 마 25:14~30

계 5:6-14
----------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임창선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공재량 이선화 최영혜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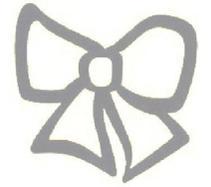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텅 빈 들녘과 앙상한 나뭇가지가 말을 건네오는 늦가을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큰 비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부질없는 것들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만으로 자신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난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룩함이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발의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욕망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이웃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룩함과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김남종 오복순 김성한 조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해령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박시내 박예림 박윤숙 박인혁  
 배성례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국노 김민화 이수연 이재문 이정은 이지훈 이호원 장근성  
 박희순 정영례 정종삼 정현선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최은미 최철수  
 광권희 허준호

### 감사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태정 박상욱 임서영 백묘현 이유일 김미희 이지하  
 전인섭 참빛찬양단 무명13

### 생일감사헌금

무명1

### 녹색꿈헌금

김혜영 우순덕 은종인 무명5

백혜숙	박성희	박영희	조순덕
신진식	최경미	이은옥	서원금
장영숙	신영신	박경원	김명순
노순옥	진정숙	진정숙	문금석
박홍재	박홍재	정선희	조영순
광미숙	박미영	배삼순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광권희	김윤수	광권희	이윤수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김경혜	김희민
박혜경	박혜경	심상	김민화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광상준		
신진식	한성		

마음으로 읽는 글

## 달은 추억의 반죽 덩어리

- 송찬호

누가 저기다 밥을 쏟아 놓았을까 모락모락 밥집 위로 뜨는 희망처럼

늦은 저녁 밥상에 한 그릇씩 달을 띄우고 둘러앉을 때

달을 깨뜨리고 달 속에서 떠오르는 노오란 달

달은 바라만 보아도 부풀어오르는 추억의 반죽 덩어리

우리가 이 지상까지 흘러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빛을 잃은 것이나

먹고 버린 달 껍질이 조각조각 모여 달의 원형으로 회복되기까지

어기여차, 밥을 굴러가는 달빛처럼 빛나는 단단한 근육 덩어리

달은 퐁퐁 뭉친 주먹밥이다. 밥집 위에 뜬 희망처럼, 꺼지지 않는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거짓 왕들의 승리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종국에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기뻐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그 부질없는 우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참된 왕,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총회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성실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장성호 선생 김기성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강세기 정원석 이현순 김현영 이소애
	헌금위원	한상익 유경순

## 관계의 최고형태

... 우리가 인식하거나 서술하려는 대상이 비교적 간단한 한 개의 사물이나 일개인인 경우와는 달리 사회나 민족이나 한 시대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 어려움은 실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상이 이처럼 거대한 총체인 경우에는 필자의 관찰력이나 부지런함 따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필자의 문장력이나 감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역사 의식이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적 사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자료를 동원하고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사고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대상과 필자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대상과 필자가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깊이 있는 인식이, 또 어떠한 측면이 파악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계, 즉 구경하는 관계 그것은 한마디로 ‘관계 없음’입니다. 구경이란 말 대신 ‘관조’라는 좀더 운치 있는 어휘로 대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관조만으로 시작되고 관조만으로서 완결되는 인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자기가 애정의 젖줄로 연결되거나, 운명의 핏줄로 맺어짐이 없이, 즉 대상과 필자의 혼연한 육화(肉化) 없이 대상을 인식·서술할 수 있다는 환상, 이 환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범람하는 저널리즘이 양산해낸 특별한 형태의 오류이며 기만입니다. 저널리즘은 항상 제3의 입장, 중립의 불편부당이라는 허구의 위상을 의제(擬制)하여 거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대상과 관계를 가진 모든 입장을 불순하고 저급한 것으로 폄하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꾼, 진실의 낭비자로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상품의 소비자, 스탠드 위의 관객, TV 앞의 시청자 등 ..... 모든 형태의 구경꾼의 특징은 대상과 인식 주체 간의 완벽한 격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과 인식 주체가 구별,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종 양자의 차이점만이 발견되고 부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을 관찰하

면 할수록 자기와는 점점 더 다른 무엇으로 나타나고,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하여 종내에는 대상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자기 자신마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

지역 사는 우리들 재소자도 대상화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명별, 범죄유형별..... 여러 가지 표식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고, 범죄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전 등 각종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서는 그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소자들이 그들과 동시대를 살고, 동일한 사회관계 속에 연대되고 있다는 거시적인 깨달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류 연구나 심리학적 관찰은 결국 그들과는 전혀 판관인 이를테면 ‘종’(種)을 달리하는 네안데르탈인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범죄인종’(犯罪人種)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견된 범죄인종의 여러 가지 패륜은 그들 자신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수십만 년의 거리가 있는 것이란 점에서 그들 자신의 윤리적 반의(叛意)를 자위하고 두호(斗護)하고 은폐하는 데 역용됨으로써 결국 그들 자신을 패륜화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처한 위치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대상과 내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검은 피부에 대한 말콤X의 관계, 알제리에 대한 프란츠 파농의 관계.....

주체가 대상을 포용하고 대상이 주체 속에 육화된 혼혈의 엄숙한 의식을 우리는 세계의 도처에서, 역사의 수시(隨時)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대상과의 일체화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진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